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6호 [무게 제23178호] 주체99(2010)년 8월 14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조국 11일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축원합니다 라는 글말이 씌여져
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 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이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건강을 삼가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024호 주체99(2010)년 8월 1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기념주화를 발행함에 대하여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선로동당대
표자회를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경사로 뜻깊게 맞이
하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전군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49(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선언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실
으로써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끊이지 이어지게 되
었으며 조국과 민족,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
은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
승의 백두산혁명군으로 역세계 키워주시고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였기에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자
주와 정의의 성새로 높이 솟아오르고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덕
없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한길로 역세계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완

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어리라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기념주화 《선군혁명령도 50돐》을 발행한다.
기념주화 《선군혁명령도 50돐》은 금화와 은화로 발행
할것이다.
2. 기념주화 《선군혁명령도 50돐》의 그림틀이와 규
격, 조성을 승인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
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기념주화 《선군혁명령도 50돐》의 그림틀이와 규격, 조성

1) 금화
금화의 앞면에는 휘날리는 산 백두산위에 원수별을 두드
린 지게 형상하고 뒷부분에
《선군혁명령도》, 아래부분

오각별을 장식하였다.
금화의 뒤면에는 중심에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부각하고 광염에 순도, 무게를
밝히었으며 뒷부분에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이라는 글자와 아래부분에 발
행년도를 새겨넣었다.
금화의 규격은 직경 35mm,
두께 2mm이다.
2) 은화
그림틀이는 금화와 같다.
은화의 규격은 직경 40mm,
두께 3mm이다.
은화는 순은이다.



기념주화 《선군혁명령도 50돐》 (금화) 기념주화 《선군혁명령도 50돐》 (은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친필현판과 백두산 3대장군의 현지지도 사적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건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친필현판과 백두산 3대장군의
현지지도사적비가 김정숙평양
제사공장에 건립되었다.
공공이 13일에 진행되
었다.
리태남대각부총리, 김정민
장비담당자도국 국장, 평안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판
계부관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
였다.
지배인 김명환이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써주신 현판글발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넋원을 꽃피우
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공장의 로동
계급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앞장에 설것을 바라
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
려있다고 말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
의 믿음직한 비단실생산지로서
의 믿음직한 비단실생산지로서
건설된 공장에 백두산 3대장군
의 현지지도사적비를 건립한것
은 전체 종업원들의 커다란 영
광으로, 행복으로 된다고 하면
서 그는 공장의 강화발전을 위
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
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
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
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에서
말고있는 사랑과 인무를 다하
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공장을 찾으시
어 육친의 정으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살펴주시고 인민
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이곳 로동계급이 전국의 앞장
에 서도록 하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백두산 3대장군의
손길아래 공장이 나라의 명주
실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되어 자
랑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강
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
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
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
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생산에
서 혁신을 이룩할데 대하여 그
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바라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를 다그치며 질풍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
들은 친필현판과 현지지도사적
비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만대에 빛내이자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증오하는대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뜻깊은 조국해방기념일을 맞
으며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일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빼앗긴 조국을 찾아
주시고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
하고 긍지로운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
의 조국해방업적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체득시
키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김일성 동지
혁명사적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 강연, 해설
답화, 예술선동, 연구토론회
등을 통하여 일제기 혁명의 길
에 나서시어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성되도록 하시어 우리 조국
을 찾아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광강도, 평안북도, 자강도
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빨찌산참가
자들의 회고기》에 대한 학습
을 실속있게 조직하고있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

도당위원회에서는 조국해방기
념일을 계기로 김일성 동지
혁명사적관과 혁명전적지, 혁
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 및
답사를 의의있게 조직하여 모
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어나
가시는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드
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가다들
게 하고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통성기계련합기업
소, 홍남비료련합기업소,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내
려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에게 권리해인의 예지와
탁월한 명군술로 받들까지 무
장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
시고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
리의 한길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해
감명깊게 해설해줌으로써 그들
을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대혁
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평양시,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 련합기업소, 농촌당조직들
에서 선동원, 강연장사, 직의
강연장사들과 사업을 실속있
게 짜고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통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
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
방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
과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비약
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도 사
상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 일 호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담게

◇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스런 로력적성물
을 마련한 대고조간석 건설자들에게 대한 표
창식이 진행된 소식은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
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3 000여명의 간석건설자들이 한날
한시에 굽는은 영예를 지니게 된것은 우리 영
웅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우
리 대고조의 용사들처럼 대고조전군에서 통
장훈을 부르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원
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광판하는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박차고 대중
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으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대고조의
위력자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돋보이는가.
◇ 백철불굴의 영웅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의 혁명적기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인민
을 낳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7월 대고조간
석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자연개조사업은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 당과 혁
명에 끝없이 총적인 애국자, 영웅들만이 해낼
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
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전사들이다. 당과

현대적인 과일종합가공공장건설 힘있게 추진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확장공사장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
쟁으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확장공사장에서
위훈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
있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
자들이 과일종합가공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짧은 기간에 기초
공사를 끝낸데 이어 팔조공사에
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일저장가 가공대책을
잘 세워 환알의 과일도 하찮
하지 않게 하여야 하겠습
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
적인 과일종합가공공장을 일떠
세워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위향한 전망



항일전에 울리던 진격의 나팔소리는 오늘날 우리 인민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삼시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